| 현불 논단 |

無緣사회 넘어서기 위해서는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광화문 사랑의 탑 온도 저조해
기부 불신 등이 원인으로 진단

"너는 없고, 나만 있는" 사회인
무연사회화도 기부를 않는 이유
인간 관계망 해체로 온정 사라져

'사회구조 자비화'가 필요한 시점
이젠 '이 우얏꼬' 자비 화두 들자
저금통 기부한 천진불들에 감사를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왔다. 시작도 끝도 없이 흐르는 시간을 낚시질하여 조각하는 존재는 이 지구촌에서 인간만이 하는 행위인 것 같다. 이것은 좀 더 풍요롭고 뜻 깊은 삶을 향해하고자하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리라.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문턱에 들어서면 각종 자선 행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인간의 착함을 증명하려는 듯. 이것을 위선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선행위는 선과 위선의 동전 양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탑'의 온도가 매우 낮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온다. 구랍 30일 현재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65.2도를 나타내고 있다.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은 지금 한파에 얼어있다. 언론에서는 그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기부문화에 대한 불신을 거론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그렇다 치고 자선모금 단체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128억 원의 기부금을 유용한 '새희망 씨앗 사건'과 희소병을 앓는 딸의 치료기부금 12억 원을 탕진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이다. 이를 어쩌랴. 가짜 구세군 자선냄비도 생겼다니.

〈냉정한 이타주의자(Doing Good Better)〉라는 책이 생각난다. 이 책은 감정과 열정으로 선행을 하지 말고 결과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냉정한 이타주의자가 되라고 주장한다. 이 말에 이해는 가지만 보통 일반인이 그 결과의 효율성을 어찌 알 수 있을까? 또한 자선 행위 자체가 개인에게 주는 자존감과 행복감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기적 이타심은 자선 행위의 원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필자는 사랑의 탑의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사회의 무연사회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연사회는 혼자 살고 또 혼자 죽기도 하는 사회이다. 무연사회라는 용어는 불교신자에게는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붓다의 핵심 가르침이 연기론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연기론의 핵심은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연사회는 "너는 없고 나만 있는 사회"이다. 모든 존재는 여러 연결망으로 얽혀서 함께 존재한다. 그런데 무연사회는 그 연결망이 훼손되고 끊어지고 있는 사회다. 우리 사회는 결혼의 기피와 저출산,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의 증가, 이혼 등 가족 해체 현상 등 무연사회의 특징이 가득하다.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홀로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홀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불편을 느끼고 스스로 자신의 공간을 축소시키는 홀로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스스로 홀로족이 된 사람도 본질적으로 사회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은 일종의 피난 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간 삶의 의미와 가치는 '함께 사는 것'에서 나온다. 인류 정신사의 중요 덕목들, 즉 자비, 사랑, 중용, 인, 의, 예 등은 다 함께 살기 위한 지혜들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무연사회 속에서 불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불교는 자비라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 자비의 실천은 많은 지혜를 요구한다. 그래서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지신다.

무연사회를 넘어 따뜻한 공동체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제 자비 실천 과제는 타자에 대한 배려라는 개인 윤리적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의 자비화라는 사회윤리적 차원으로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한국불교는 '이 뭣꼬?'의 화두보다도 '이 우얏꼬?'의 자비화두가 절실하다. 사족 하나, 저금통을 깨 사랑의 탑에 기부하는 어린이가 많다하니 천진불이 아직 살아 계신다.



기자칼럼
윤호섭 취재부 기자

태고종이 2위로 돌아가려면

2015년 폭력으로 얼룩진 분규사태와 53억 원에 달하는 종단관련 부채로 극심한 위기를 겪은 태고종이 편백운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이후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부채 53억 원 중 33억을 탕감받고, 20억 원을 상환했다고 밝히며 채무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또한 불합리한 종헌종법 보완과 분담금 징수제도 개선 의지를 밝혀 무술년 새해 종단 발전을 위한 도약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하듯이 태고종은 현재 종단이 처한 상황파악과 돌파구 모색을 냉철하게 해야 한다.

편백운 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후 종단 정상화에 매진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더 나은 종단 발전을 위해서는 수장으로서 무게감 있고 현실적인 발언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편백운 스님은 올해 시무식에서 "현재 5번째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 태고종 의전순서를 2번째로 돌려놓지 않으면 회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본인 취임식에 축하하러 온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에게 '조계종이 선암사를 뺐으려고 하면 조계사를 점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런 표현은 태고종 종도들에겐 종단 위상을 되찾기 위한 수장의 기백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더 넓게 보면 문제해결보다는 한국불교 화합을 저해하는 발언이다.

분규사태 이전 소위 '2위 종단'이던 태고종이 '5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과정은 명확하다. 태고종은 2015년 1월 총무원 청사 폭력사태가 발생해 종단 대표성 혼돈과 행정대상의 부재가 빚어졌다. 또한 회비 체납까지 불거져 종단협은 이사회를 통해 태고종의 자격정지를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2016년 6월까지 정상화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는 결의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태고종은 4월 26일 회비 완납 후 부회장 복귀를 요청, 종단협은 태고종의 복귀와 함께 의전순서를 부회장 종단 중 하위로 한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2016년 7월 종단협 회비체계를 개편하면서 천태종이 수석부회장, 진각종이 차석부회장을 맡아 일반부회장보다 더 많은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태고종의 의전순서 문제제기가 단순히 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종단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부회장은 별도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다 지난 이사회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했다. 그동안 관례상 조계종이 회장을 맡고, 가장 많은 회비를 납부해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결국 성급한 발언보다는 자성과 묵묵한 실천을 바탕으로 밖으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것이 순서이고, 여법한 모습이다.

편백운 스님은 시무식에서 "중국불교를 통한 독자적 대북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태고종이 타종단에 비해 남북교류에 미진했던 부분을 성찰하고, 대사회 현안에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확고한 종무기조를 바탕으로 이를 구현해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내실을 다지고 대사회활동을 펼치며 천천히 성과를 이뤄간다면 스스로가 아닌 모두가 인정하는 한국불교 대표종단으로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社說

남북불교 교류 재개를 기대하며

새해 벽두부터 반가운 소식들이 들린다. 1월 5일 오전 북측이 남측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안을 수락했고, 이에 앞서 한국과 미국 양국 정산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동안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키로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힌 뒤 닷새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일정이 숨 가쁘게 전개된 것이다.

남·북한이 해빙 분위기를 이어감에 따라 불교계 남북 교류 재개도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1월 1일 각각 강수린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에게 남북불교 교류 재개를 희망하는 새해 축전을 보냈다. 강 위원장은 회신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불교도들 사이의 연대가 강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경색 국면에 있었던 남북 관계가 새해를 맞아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이 시점에서 불교계는 앞으로 남북불교 재개가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 기실 불교계는 통일종책연구위원회(안)·민추본 발전방안 2.0을 수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했으나, 남북 갈등으로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흔들리는 통일사업은 한계가 명확한 만큼 이를 극복할만한 통일 종책이 수립돼야 한다.

남북한 불교계가 공동으로 문화재를 복원하는 등의 문화적 접근 역시도 추진할 만하다. 남북불교 교류 재개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라며, 미래 지향적 통일 종책들도 수립되길 기대한다.

모바일로 전법 포교 효율 높이자

조계종 포교사단이 1월 1일부터 전법 포교단체 사상 최초로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했다. 120여 포교사단 임원들이 모바일로 각종 포교사단 내 신속한 행정 업무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전법 포교단체에서 차용해야 할 부분이 많다. 먼저 문서 양식을 규격화 했다는 점이다. 전자결재 서류 도입을 통해 한두명의 직원이 처리해야 하는 전법 포교단체 현장에서 문서 작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업무 과중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PDF형식으로 인터넷에서 서류를 보관해 사무공간 효율성도 높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기업의 기성제품을 사용하면서 제작비용도 줄였다. 한달에 1명당 7000원 수준이니, 더 적은 결재권자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 초기비용도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공지 열람 등을 통한 본단과 지역단의 네트워킹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 포교사단은 올해 포교사 디지털 교육 등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 도입 효과를 배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불교는 위기다. 그 위기 속에는 영세한 전법 포교 단체들의 현실이 반영돼 있다. 상근직도 없고, 사무공간도 없이 어려움 속에서 전법에 나서는 곳이 많다. 이런 가운데 모바일 시대 도래는 불교에게 기회다. 기존의 고비용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꾼다면 포교 전법에 큰 변화가 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인구는 3000만 명이다. 각 단체들은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포교 행정과 인력 관리 등 기초적인 시스템부터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모바일에 달려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